

20년 방치 남원 비사벌콘도, '문라이트 파크'로 재탄생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5년간 230억 투입 '달 전시공원' 조성 시민쉼터·꽃빛정원 등 남원의 멋·맛 소개 프로그램 담아낼 듯

20여년 폐건물로 방치된 남원의 옛 비사벌콘도가 달을 주제로 한 '문라이트 파크(Moonlight Park)'로 재탄생한다.

2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돼 정부 예산 100억원 등 총사업비 230억원을 투입, 문라이트 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이 사업을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오랜시간 폐건물로 방치됐던 옛 비사벌콘도의 지하공간을 재생한다.

이 곳에는 지역의 다양한 달 이야기를 정보기술을 활용, 전시시설인 문라이트 파크로 꾸민다. 1층은 시민쉼터와 편의공간을, 옥상에는 꽃빛정원을 조성한다.

핵심은 승월대와 이성계의 달오름 전설 등 지역에 내려오는 다양한 달이야기를 문라이트 파크에 담는 것이다. 관리·운영을 맡은 김병중미술관의 대표 작품들도 전시한다.

남원시는 단순전시에서 탈피해 미디어아트와 접속시킨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관광 수요에 맞춰 지

역을 대표하는 달빛전설 등 브랜드공연도 연다.

관광거점도시 전주와 연계하는 관광프로그램과 남원관광지 내 심야 포차단지 조성, 모바일 스탬프 투어 개발 등 남원의 멋과 맛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담는다.

주변 관광지와 연계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문라이트 파크와 인접한 사랑의 광장에 남원 랜드마크가 될 '사랑의 종' 설치사업을 진행한다.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주변에는 테마별, 이벤트성 랜드마크인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남원시는 올해 내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까지 핵심 및 인프라 사업을 완료한 뒤 2025년부터 관광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유휴지 재생을 기점으로 남원관광지 전체를 다시 되살리게 될 것"이라며 "관광 1번지 남원의 위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20여년 동안 폐건물로 방치된 옛 비사벌콘도가 달을 주제로 한 '문라이트 파크(Moonlight Park)'로 재탄생한다. 사진은 정보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달 이야기로 꾸며져 문라이트 파크. <남원시 제공>



마을 터줏대감 보호수·노거수 보호 정읍시, 9800만원 들여 주변 정비

정읍시가 오랜시간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보호수와 노거수를 정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일 정읍시에 따르면 다음달까지 총 9800만원을 들여 덕천초등학교 등 3곳에 자리한 3그루의 보호수와 태인면 태남리 등 13곳에 있는 22그루의 노거수를 대상으로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원인 '보호수'와 마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노목·거목·희귀목 등 '노거수'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보호수'는 보존과 증식 가치가 있어 지역에서 보호하는 나무이고, '노거수'는 수령이 많고 커다란 나무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나무다.

정읍시는 수령이 100년 이상이고 규격이 적합한 나무 중 역사·학술적 가치가 높은 노목·거목·희귀목 중 역사와 전설이 담겨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했다. 현재 43개 지역에 소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배롱나무 등 68그루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도심 종교시설 주차장 10곳 익산시, 시민에 무료 개방

익산시는 도심 종교시설의 부설 주차장 10곳을 이달부터 3년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무료 개방되는 곳은 이리제일교회, 세소망교회, 낙원교회 등 10개 교회의 주차장이며, 총 985대를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일요일은 이용이 제한된다.

익산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아파트, 종교시설의 주차장을 활용하기로 하고 그동안 공모 등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주차장을 개방한 종교시설에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해 옥외 보안등 및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을 설치해주고 주차장 포장 등 시설 보수를 해준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순창군,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순창군은 지역 200여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진)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 사업'에 추가 선정돼 미래세대의 건강과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순창지역 임산부에게 월 1회, 1년간 공급한다.

임산부는 9만6000원(월 8000원)을 부담하면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12개월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비용은 총 48만원인데 임산부는 이 중 2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거주하면서 지난 1월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순창군은 공급 업체가 선정되면 공급 협약을 맺



어 주문·결제시스템을 구축한 뒤 꾸러미 상품을 구성해 다음달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임산부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임산부 꾸러미 쇼핑몰'에 회원 가입해 상품을 주문하면 배송받을 수 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kwangju.co.kr

고창군, 복분자 식초음료 개발...지역 카페에서도 판매

'식초문화도시' 고창군이 어디서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식초음료를 개발했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식초음료 소비 확산과 식초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고창군청 1층에 있는 '아피다방'을 비롯해 지역 곳곳의 카페에 새로 개발한 '복분자 식초음료'를 공급하고 있다.

고창읍내 '커피를 부탁해', '오월의 정원', '바닐라데이즈'와 정읍시 전북과학대 앞 '인더그라티'가

복분자 식초음료 판매에 함께하기로 했다. 앞으로 협의 통해 식초음료 판매 카페를 늘려갈 계획이다.

복분자 식초음료는 복분자 식초의 새콤한 맛과 복분자 원액의 단맛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온기를 불어 넣어줄 따뜻한 차류, 블루베리 과육 등을 넣은 디저트류와 얼음과 탄산을 넣어 다가오는 여름에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아이스 음료 등이 선보인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청 구내식당에 설치한 코로나19 차단 안심가림막.

정읍시, 코로나 확산 방지 구내식당 등 가림막 설치

정읍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청 구내식당과 민원실 등에 안심 가림막을 설치했다.

구내식당과 민원실은 업무특성상 밀접 접촉이 많아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읍시는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말(침방울) 감염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심가림막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또 다른 실천으로 공무원과 시민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